

데이트의

미래 -

더 유연하고,

더 솔직하게

틴더의 2020년이

다가올 데이트의 10년에 대해

말해주는 것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 노멀로 자리잡은 지난 한 해는 싱글들에게는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제를 목적으로 즐겨 찾던 장소들이 연달아 폐쇄됐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를 바라는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틴더는 이처럼 절박한 타인과의 교류를 위해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몇 안 되는 장소들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삶에 대한 상실감, 그리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 Z세대는 빠르게 뉴 노멀 시대의 데이트 방식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틴더에서 이들은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더 다양한 이유로 함께 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다사다난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데이트의 미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Z세대는 전통적인 데이트의 개념과 금기 사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데이트는 더이상 이제까지 익숙했던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서나 시간을 틀여 진행해야하는 구매가 아니라 기대(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 또는 감정(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경험(어색함을 없애기 위한 대화를 넘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생활의 일부가 된 디지털 데이트)의 면에서 좀 더 유동적인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사실상, Z세대는 기존 데이트에서 모순된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가볍게 넘니듭니다. 데이트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짧은 순간을 위해 시간을 내면서도 데이트의 세계에 다시 뛰어들어야 한다는 강한 긴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 노멀로 자리잡은 지난 한 해는 싱글들에게는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제를 목적으로 즐겨 찾던 장소들이 연달아 폐쇄됐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를 바라는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틀더는 이처럼 절박한 타인과의 교류를 위해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몇 안 되는 장소들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전체 회원 중 60%가 틀더를 찾은 이유는 외로움을 느껴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Z세대가 틀더를 찾은 구체적인 이유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자신들이 속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Z세대의 40%는 '새롭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틀더를 방문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틀더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증가했습니다. 2020년 2월에 비해, Z세대가 틀더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으며 1일 메시지 발송 건수는 2021년 2월에 19% 상승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에 대화 시간 역시 32% 길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빈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Z세대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프로필을 거의 3배 가까이 자주 업데이트했으며 그 빈도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팬데믹 동안의 프로필에는 선거처럼 시사적인 주제들이나 넷플릭스의 브리지튼 같은 인기 콘텐츠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0%

(틀더 회원중)
외로움을 느껴서

40%

(Z세대 중)
'새롭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대화시간 약

32%

증가

Z세대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3x

프로필을 자주 업데이트

코로나 봉쇄 동안 날 지켜줄 스포티파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브리저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Z세대는 화상 채팅도 활용했습니다. 이는 Z세대가 코로나19의 제약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만남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틴더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팬데믹 기간 동안 매칭 상대와 화상 채팅을 나눴으며 40%는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화상을 통해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상 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열망하는 Z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MZ세대의 트렌드 연구하는 기관인 YPulse에 따르면, 데이트 앱 이용자의 43%가 데이트 앱 덕분에 팬데믹 기간 동안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Z세대의 데이트 행동양식에서 엠티인 혁신과 소셜 디스커버리 분야에서 틴더가 이룬 성장으로 **2020년은 틴더 역사상 가장 분주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틴더 내 참여도와 액티비티는 1년 내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틴더 회원 당 스와이프는 11%, 매칭은 42% 증가했습니다. 틴더에서의 스와이프 횟수는 2020년 3월 29일에 사상 처음으로 1일 30억 회 기록을 갱신한 이후로 작년 한 해 동안 1일 30억 회를 130번이나 갱신했습니다.

Z세대의 약

50%

팬데믹 기간 동안 화상채팅 경험

작년 한 해 동안
1일 스와이프 30억회 기록을 130번 갱신

130x

2020년 최다 스와이프 횟수가 기록된 날들



코로나로 인한 봉쇄



개강



미리 할러윈



스와이프 선데이



밸런타인 데이



2020년은 Z세대 행동양식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변화들은 앞으로 데이트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변화들을 통해 데이트의 다가올
 10년은 아래와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좀 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192cm만큼 우울하고 불안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양이를 쓰다듬어요.

흥터, 문신, 튼 살,
 전혀 신경 안 씀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티더 회원들은 팬데믹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티더
 회원의 프로필에는 '불안함'과 '정상화'라는 언급이 각각 31%, 15배 늘어났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젊은 티더 회원들은 '네 자신을 드러내봐(Put Yourself Out There)
 챌린지에 동참하여 각자의 진실한 모습이 담긴 프로필을 개시했습니다. 이처럼 솔직함을
 추구하는 변화는 **진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Z세대가 점차 데이트팅 인구조
 편입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현재 티더 회원의 50% 이상이 Z세대입니다).



경계(타인과의 거리)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팬데믹은 개인적인 경계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왔습니다. 티더 회원들은 자신의
 경계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프로필을 활용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쓰기" 언급은 이전에 비해 100배 증가했으며, "경계(타인과의
 거리)"라는 단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쓰였으며(19% 증가), "동의"라는 표현도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YPulse의 '코로나19가 종식된 세상에서의 데이트'에
 관한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의 징후를 발견했으며 이 연구에서 데이트 참가자의
 17%가 '만남에 앞서 방역 관련 예방 조치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으며 16%
 는 '상대방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미래에도 관계에 있어 동의에 대한 대화를 더 흔하고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화가 점차 친밀한 주제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연마한 스킬을 발휘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19%

내 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
 각자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켜야할 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만약 게임에서 나를 이길 수 있다면
 키스해줄게요.. 🤔
 (당연히 당신의 동의 하에)



더 많은 사람들이 #3 “상황을 일단 지켜보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맺는 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틴더 회원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더욱 마음이 열려 있음을 보이면서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나 ‘열린 마음’ 같은 문구들이 틴더 프로필에 언급된 횟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19%, ‘열린 마음’은 17% 증가했습니다). 또한, 틴더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특정한 유형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50%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은 결혼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보다, 보다 개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흐름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쿨한 만남도 진지한 연애도,
때론 멋진 친구나
피크닉 데이트도 좋아요



주로 친구를 찾지만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도 좋아요. :)
농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

디지털 데이트는 #4 뉴 노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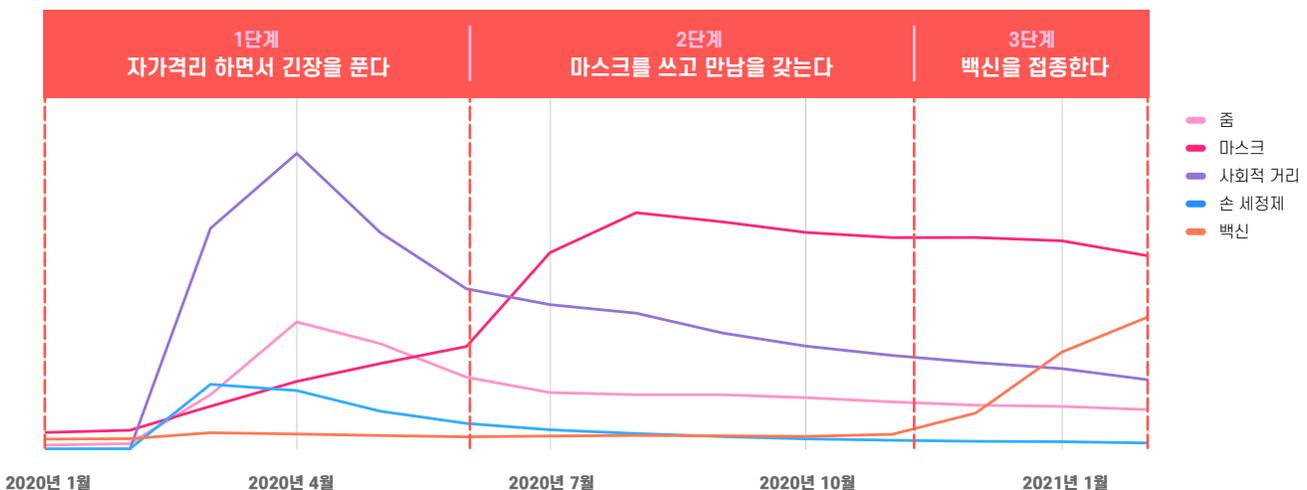
그쪽은 제가 도어대시로 보내드린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페이스북타임으로 대화하는 건 어때요?



대면 접촉이 위험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상 경험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Z세대는 실제 만남을 대신하여 가상 채팅이나 가상 데이트를 선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Z세대 틴더 회원의 절반이 매칭 상대와 가상 채팅을 나눴으며, 3분의 1은 가상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외출을 하기보다는 틴더를 통해 만남을 갖고 비디오 게임 ‘동물의 숲’(동물의 숲이 언급된 횟수가 30배 증가)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음식 배달 서비스인 도어대시(DoorDash)에서 주문한 음식을 줌(Zoom)에서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도어대시 이용은 3배, 줌은 30배 증가). 필요에 의해 시작된 흐름일지도 모르지만, 디지털 데이트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틴더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데이트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틴더 회원 중 Z세대의 40%는 데이트 장소들이 다시 개방된 후에도 디지털 데이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팬데믹의 단계

(틴더에서 사람들이 화제로 삼는 주제에 기초)



#5

첫 데이트에서 어색함을 없애기 위한 대화보다 액티비티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방구석 데이트 🏠, 핫코코아 만들기 ☕, 옛날식 눈싸움하기 ❄️ 등 귀여운 한겨울 데이트 환영.

지난해의 경우 틈더를 통한 대화가 19% 증가하고 화상 채팅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트 상대를 실제로 만나기 전에 디지털로 '상대를 파악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YPulse에 따르면, 데이트 참가자의 20%가 실제로 만나기에 앞서 가상으로 사전 데이트를 거쳤습니다. 게다가 많은 바와 음식점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전통적인 첫 데이트 장소들은 많은 경우 더 이상 선택지로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남의 시간이 오면 데이트 참가자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창의적이고 친밀하며 격의 없는 첫 데이트 액티비티를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에서 '롤러스케이팅'이 언급된 횟수가 3배 증가했으며 요새 만들기에서 눈싸움에 이르는 데이트 액티비티에 대한 언급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친밀감을 쌓기 위해 나누는 대화를 건너뛰고 활동을 지향하는 첫 데이트가 확대되는 추세는 데이트의 다음 10년을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롭고 독특한 첫 데이트 활동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3x

팬데믹 동안 "롤러스케이팅" 언급이 세 배 증가



+23%

누군가와 포옹을 원해요

단어 "포옹"이 지난 해 동안 프로필에서 증가

손 잡아줄 사람



#6 가벼운 스킨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접촉 결핍**에 따른 파급력이 틈더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가장 순수한 유형의 신체 접촉을 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통해 손잡기, 머리 쓰다듬기, 포옹 등 애정 표현을 함께 할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틈더 회원의 프로필에서 '껴안기', '손잡기' 등의 언급은 각각 23%, 22% 증가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신체적인 접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작은 스킨십에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모임이 가능해지더라도 작은 신체 접촉이 데이트 생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7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주실 분 있나요

시애틀에서 LA로 옮겼는데 팬데믹이 터졌어요.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tinder 회원들이 거주 지역을 이동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향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지내기 위해 본가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PEW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은 52%로 나타나 지난 수십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거주지를 옮긴 이들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곧바로 tinder를 찾았습니다. 프로필에서 '이사'가 언급된 횟수는 지난해에 28% 증가했습니다. tinder의 위치 설정 혹은 가까운 사람 찾기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외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기간에 특히나 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일하고](#) 거주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사람들은 tinder를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팬데믹 이후에 장거리 인간관계가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Z세대는 자신의 거주지와는 별개로 인근에 사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8

다시금 사랑의 계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갈망하는 Z세대가 올 여름을 데이트로 분주한 시기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PEW리서치센터에 따르면 52%](#)에 이르는 Z세대는 올해를 부모님과 함께 보내야 했으며 사교 생활과는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30세 미만 tinder 회원의 40% 이상이 매칭 상대를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tinder 프로필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 하기' 언급량이 2021년 2월에 들어서는 미국 tinder 프로필 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 대면 데이트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Y-Pulse 조사에서 싱글 중 54%가 '코로나19로 인해 연애생활에 차질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또는 항체 공급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매칭 상대를 만나러 밖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Pulse 조사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3분의 1 가까이가 직접 만나는 데이트에서 안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자신의 프로필에 항체 검사 양성 결과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이후로 '백신'(8배 상승)과 '항체'(20배 상승)가 언급되는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작과 함께 "백신" 언급이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나의 최고 플렉스 🤓

백신 접종이 끝났으니 걱정 없이 당신을 안아줄 수 있어요 💕💕👉👉

데이터/조사방법론

용어: 위의 모든 데이터의 출처는 tinder 프로필 혹은 tinder 앱 활동입니다. 데이터는 2020년 1월 ~ 2021년 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추출했습니다.

메시지는 회원당 메시지 평균 발송 건수를 표시합니다.

프로필 업데이트는 회원 당 월 평균 바이오 편집 횟수를 표시합니다.

WAV / 조사 데이터의 출처는 **2020년 5월 6일 ~ 5월 12일과 8월 14~24일에 미국 tinder 회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결과입니다.

스 와이프, tinder, 불꽃 로고는 Match Group, LLC의 등록상표입니다.

